

올림픽 유치 기원 ‘올림픽데이런 in 전주’

16일 6000명 참가 전주월드컵경기장·혁신도시 일원서 마라톤 대회 개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인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가 오는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과 혁신도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림픽데이런’은 IOC 창설일(1894년 6월 23일)을 기념해 올림픽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이번 행시는 IOC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 형식으로 꾸며진다.

이 대회는 국내에서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총 4차례 진행됐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림픽데이런이 전주에서 열리는 것은 전주의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올림픽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널리 알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km·10km·하프코스(21.1km)의 세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는 지난 8월 19일 티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 포스터

켓 오픈과 함께 6000명의 참가자를 선착순 접수했으며, 그 결과 티켓은 조기 매진됐다.

총 6000명의 참가자 중 남성은 60.5%, 여성은 39.5%이며, 20~40대가

90% 이상(30대 43%, 20대 30%, 40대 18%)을 차지해 젊은 세대의 높은 참여 열기를 기록했다.

특히 올림픽데이런과 같은 날 서울 광화문과 잠실 일대에서도 마라톤대회(하프 1만5000명, 10km 1만 명 규모)가 열리는 데, 전주 대회의 매진은 지역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마라톤 대회와 더불어 △올림픽 종목 체험 프로그램 △완주 인증 포토존 △농악 공연 △올림픽 응원 등 가을의 낭만을 더할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오상욱(펜싱) △이동국(축구) △신수지(리듬체조) △곽윤기(소프트백) △김예지(사격) 등 각 종목별 스포츠스타의 팬사인회도 열리며, 전주시 홍보대사인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의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공연이 펼쳐진다.

여기에 전주 출신의 가수 휘인도 축하공연을 통해 참가자들의 완주를 축

하하고, 대회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전주시 전역의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공무원 등 600여 명의 대회 운영 인력은 이날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 급수대 운영 등에 나서며, 의료 대응을 위해 전주시보건소와 덕진소방서, 완주소방서 등의 응급차량과 의료 대응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와 관련 이날 대회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구간의 도로 통제(오전 8시 30분~낮 12시)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시는 대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문과 안전 문자, SNS 홍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힘을 기울인다.

김용운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전주는 문화와 스포츠가 공존하는 도시로 이번 올림픽데이런이 시민 모두가 함께 뛰는 축제로 자리 잡아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풍성하고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세미나 개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8일 발전 방향 등 모색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허전)은 오는 28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제2회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세미나’인 ‘AI-Future Connect’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융합(메타버스) 콘텐츠와 인공지능(AI)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난 9월 제1회 ‘XR-Future Connect’ 행사에 이어 2회째를 맞는 행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서남권 메타버스센터가 주관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 메타버스지원센터의 성과공유회인 ‘2025 전

북 콘텐츠 피지컬 업’과 연계해 진행해 가상융합 콘텐츠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융합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마련된다.

주요 연사로는 △박승대 피지컬 AI사업추진단장 △김효진 두산로보틱스 수석 △이석현 SONY Korea 팀장 △송치우 LG전자 책임 △소재환 스마일게이트 CP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 폼(<https://buu.kr/5g8Gw4d>)을 통해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 공유대회 개최

전주시는 11일 평화의전당 유랑검찰에서 통합돌봄 수행기관 관계자와 재봉틀 봉사자, 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북부지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지난 2023년 7월 초 출범한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오는 2026년 3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입원(임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돌봄 고위험군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 등 6개 분야에서 54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31개 분야 252명의 다양한 재능을 가진 봉사자가 ‘재봉틀(재능봉사)로 복지자원의 틀을 만들어요’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하지만 기존에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주만의 특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형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추가 공급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주형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를 추가 공급한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청춘★별채’ 하반기 입주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춘★별채’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월 1만 원’이라는 획기적인 조건으로 낮춘 전주시 대표 청년정책으로, 시는 지난 상반기 모집 이후 이어진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지속 정 책 으 로, 시는 지난 상반기 모집 이후 이어진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공급 문 의 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퇴실 세대를 정비한 후 이번 하반기 모집에 나서게 됐다.

하반기 신규 모집 규모는 12호로,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은 모집 공고일인 11월 11일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19세에서 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중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월 1만 원(방수 기준)을 납부하면 된다. 보증금은 50만 원이며, 공과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한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하반기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원 신청 접수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과 지역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생산한 우수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기로 했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전주에서 생산된 품질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 하반기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전주 우수상품’은 전주시가 인증하는 지역 대표 우수상품 브랜드로,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제품·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판로 지원이 제공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 공산품 또는 농·수·축산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상품의 주원료가 전주산이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기한 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7층)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체에 대한 실무부서의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이후 바이전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호주 멜버른시와 국제 동반자 됐다

우범기 시장, 국제 외교 나서
우호 협력 공동선언·방안 논의

전주시와 호주의 대표도시인 멜버른시가 상호 발전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끄는 전주시 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호주 멜버른 시청을 방문해 케빈 로웨이 멜버른 시의원과 오진관 주 멜버른 대한민국 총영사, 마크 코크레인 멜버른 국제협력실 국장, 멜버른 지역 언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간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 도시는 이 자리에서 우호적 국제관계를 맺는 공동선언에 나섰다.

이번 서명한 협력 체결서에는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활성화 △문화·관광·도시디자인 협력 △지속가능한 문화경제 발전 △공공·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주시와의 국제교류를 약속한 멜버른시는 호주 빅토리아주 기초자치단체 중 핵심이 되는 도시로, 호주 내에서도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우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과 멜버른시 관계자들은 우호 협력 체결 이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끄는 전주시 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호주 멜버른 시청을 방문해 케빈 로웨이 멜버른 시의원과 오진관 주 멜버른 대한민국 총영사, 마크 코크레인 멜버른 국제협력실 국장, 멜버른 지역 언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간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후 문화예술과 관광, 스포츠, 경제, 도시디자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주시 대표단은 멜버른시청 방문에 앞서 주 호주대사관 멜버른분관 오진관 총영사의 초청으로 영사관에 방문해 양 도시간 우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오진관 주 멜버른 대한민국 총영사는 “전주와 같은 문화적 위상이 높은 도시와 멜버른의 교류가 매우 뜻깊고, 특히 전 세계가 K-콘텐츠의 열기로 뜨거워 지금 한국의 대표 문화도시 전주와 멜버른의 교류를 영사관이 협력

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멜버른과 전주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유산들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과 매력이 충분한 도시”라며 “멜버른과 같이 문화와 스포츠, 경제, 도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위위에 있는 도시와 상호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며 전주의 글로벌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논란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